

해외출장
보고서

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

2017 Placemaking Week 암스테르담 컨퍼런스 참석

2017.10.9 - 10.16
네덜란드 암스테르담

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

(auri) 건축도시공간연구소

목차

1. 출장개요	1
2. 2017 Placemaking Week 암스테르담 컨퍼런스 주요 활동	4
3. 출장성과 및 시사점 요약	16
4. 출장구득자료	18

1. 출장개요

1) 출장목적

o 2017 Placemaking Week 암스테르담 컨퍼런스 참석

- 장소중심의 개발 및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각종 워크숍, 주제 발표, 패널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컨퍼런스
- 주제 발표 참석을 통해 「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」에 적용 가능한 장소기반 전략계획의 국제 동향 조사
- 워크숍, 패널 토론 참여를 통해 국내 지자체의 장소기반 전략계획 수립방안 시사점 도출
-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장소중심 전략계획 주요 시행사례 자료 수집

2) 주요 업무수행

(1) 2017 Placemaking Week 암스테르담 컨퍼런스 참석

o Place Game : Sloterdijk - Placemaking Toward a Multi-Use Public Transit Area

- 일시 : 2017년 10월 10일(화)
- 장소 : Sloterdijk 역 일대
- 참석자 : Lex de Jong(Community Manager & Placemaker, Placemaking Plus), Sienna Veelders(Heritage Professional & Junior Advisor, STIPO),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26명 컨퍼런스 참가자
- 주요내용 : 장소성 부족으로 가로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Sloterdijk 역 주변의 장소성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답사 및 토론 수행

o Off-Site Workshop : Evaluating Shared Space

- 일시 : 2017년 10월 11일(수)
- 장소 : De Ruijterkade 6층 및 Amsterdam 중앙역 일대
- 참석자 : Pieter de Haan(Researcher, NHL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), Sjoerd Nota(Researcher, Traffic and Public Space, Space for Everyone),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컨퍼런스 참가자 40명
- 주요내용 : 보행, 자전거, 차량의 통행주체가 스스로 서로를 주의하며 교차하는 Shared Space의 기능성에 관한 강의 참석 후 암스테르담 중앙역 부근에 조성된 Shared Space 답사 및 기능성 평가 실습 수행

o 주제 발표 : Placemaking, Where Do We Stand? 등

- 일시 : 2017년 10월 12일(목), 13일(금)
- 장소 : Pakhuis de Zwijger
- 참석자 :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약 400명의 컨퍼런스 참가자
- 주요내용 : 장소만들기 이론 및 적용 사례와 관련한 다수의 주제 발표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,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참석함
 - Placemaking, Where Do We Stand? (Fred Kent, Founder & President, Project for Public Spaces 등 발제)
 - Tactical Urbanism to Strategic Change (Mike Lydon, Principal,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등 발제)
 - Making Main Streets & High Streets (Rosa Daneberg, PhD Fellow, KTH The Centre for the Future of Places 등 발제)
 - Placemaking for Peacemaking (Vanessa Catalano, Architect 등 발제)
 - Amsterdam : Building a Citywide Placemaking Approach 2025 (Minouche Besters, Partner, STIPO 등 발제)
 - Planning for Public Space in Amsterdam (Ruwan Aluvihare, Head, Department of Spatial Planning, Gemeente Amsterdam 등 발제)
 - Public Sector, Public Space (Maxim Bragoli, Co-founder, La Pepiniere | Espaces collectifs 등 발제)

o 현장 워크숍 : Nieuwezijds Voorburgwal : From a Space for Cars to a Place for People

- 일시 : 2017년 10월 14일(토)
- 장소 : Nieuwezijds Voorburgwal
- 참석자 : Guide Kuijvenhoven(Project Leader, Street-Oriented Approach, Gemeente Amsterdam), Danielle Meiboom(Area Manager, Nieuwe Zijde, Gemeente Amsterdam),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38명의 컨퍼런스 참가자
- 주요내용 :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대상지의 기존 지역성, 다양성,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공간 답사 및 장소성 모색

(2) 암스테르담 Museumplein 및 Amsterdam Museum 답사

- 일시 : 2017년 10월 15일(일)
- 장소 : Museumplein, Amsterdam Museum

- 답사자 :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
- 주요내용 : 서울시의 브랜드 “I.Seoul.U” 개발을 위한 선진사례로 활용된 암스테르담 Museumplein의 “I amsterdam” 조형물 및 보행광장과 암스테르담 시 도시발전의 역사를 설명하는 암스테르담 박물관 답사를 통해 암스테르담 시의 장소성 부여를 통한 도시설계 과정 조사

3) 주요 일정

일 자	현지시간	출발지	도착지	일 정	기 타
10월9일 (월)	14:00 - 19:00	인천	암스테르담	출국(대한항공, 직항편)	
	19:00 -	암스테르담		현지 이동	
10월10일 (화)	9:00- 19:00			2017 Placemaking Week 참석 - Place Game : Sloterdijk	
10월11일 (수)	8:30- 20:00			2017 Placemaking Week 참석 - Off-Site 워크숍 : Evaluating Shared Spaces	
10월12일 (목)	9:00- 17:30			2017 Placemaking Week 참석 - Placemaking 주제 발표	
10월13일 (금)	9:00- 17:30			2017 Placemaking Week 참석 - Placemaking 주제 발표	
10월14일 (토)	9:00- 17:30			2017 Placemaking Week 참석 - Tour 워크숍 : Nieuwezijds Voorburgwal	
10월15일 (일)	9:00- 15:00			주요 장소 답사 - Amsterdam Musuemplein - Amsterdam Museum	
	15:00- 18:00			현지 이동	
	21:00- 15:00	암스테르담	인천	귀국(대한항공, 직항편)	
10월16일 (월)					

2. 2017 Placemaking Week 암스테르담 컨퍼런스 주요 활동

(1) Place Game : Sloterdijk - Placemaking Toward a Multi-Use Public Transit Area

- 일시 : 2017년 10월 10일(화)
- 장소 : Sloterdijk 역 일대
- 참석자 : Lex de Jong(Community Manager & Placemaker, Placemaking Plus), Sienna Veelders(Heritage Professional & Junior Advisor, STIPO),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26명 컨퍼런스 참가자
- Place Game은 장소성 부족 · 부재의 문제를 지닌 주요 가로환경과 공간을 답사하고 장소성 개발과 가로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해 보는 워크숍

o Place Game : Sloterdijk 주요 내용

- 암스테르담 Sloterdijk 기차역은 가로환경은 기차, 트램, 버스의 대중교통 허브로 사용되는 공공건축물로서 주변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
- Sloterdijk 역 주변은 기존의 사무용 건축물 중심의 개발일도에서 벗어나 대학 유치와 주거지역 개발을 통해 거주 중심의 지역으로 변화를 시도 중으로 고가철로 아래(under the railtrack)에 위치하는 가로환경의 활용 저하와 장소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냄
- 장소성 개발 방안의 그룹별 발표에 대해 지역 도시설계가, 담당 공무원 등이 피드백 제시 및 적용가능성 판단
- 출장자는 문제의 가로 공간이 버스 승하차장과 기차역사 간의 이동통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고가철로 및 대형 콘크리트 기둥으로 보행자 및 방문객의 공간이용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음을 답사를 통해 조사함
- 장소성 부여와 공간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둥 및 고가철로 천장의 페인팅, 풍부한 바람을 활용한 스윙체어 및 모빌 설치, 조명과 음악 제공, 조경요소 보완, 쉼터 제공, 스크린 설치 및 영상물 상영 등의 해결방안 제안
- 자문위원단은 해당 장소활용의 장애요소로 고려되었던 바람을 긍정적으로 활용(embrace)하고 조명 · 음악 · 색상 및 다양한 공간활용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장소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실천가능하며 우수한 장소기반 전략계획으로 평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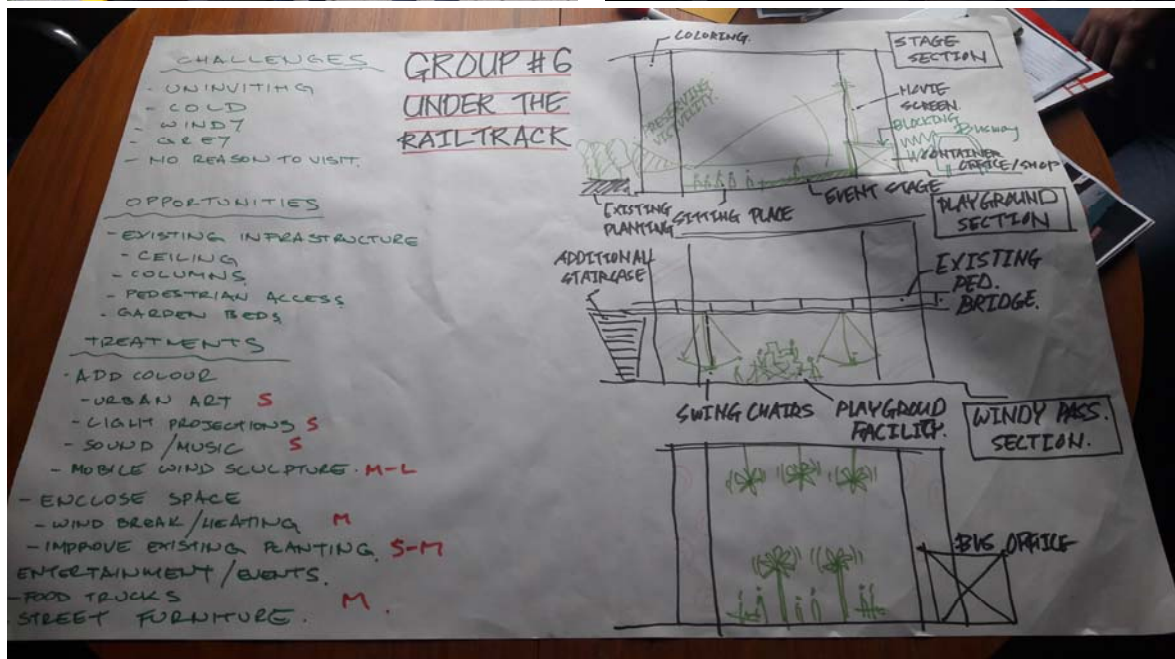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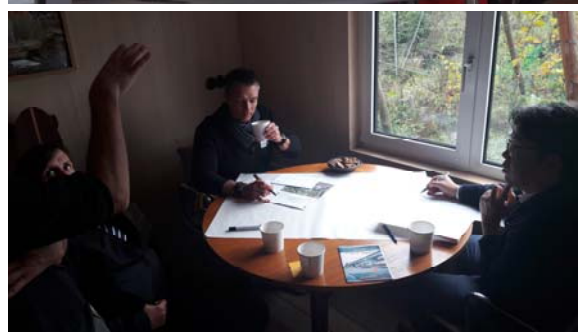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Sloterdijk 고가철로 하부 가로공간 장소성 개발 워크숍 참여
(출처 : 2017.10.10. 직접촬영)

(2) Off-Site Workshop : Evaluating Shared Spaces

- 일시 : 2017년 10월 11일(수)
- 장소 : De Ruijterkade 6층 및 Amsterdam 중앙역 일대
- 참석자 : Pieter de Haan(Researcher, NHL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), Sjoerd Nota(Researcher, Traffic and Public Space, Space for Everyone),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컨퍼런스 참가자 40명
- Off-Site 워크숍은 Shared Space 구현을 통한 장소성 개발과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현장답사를 통한 Shared Space의 기능 평가 실습으로 구성된 워크숍

o Off-Site Workshop : Evaluating Shared Spaces 주요 내용

- 보행자, 자전거, 자동차가 통행로가 선으로 구분되고 신호에 맞추어 순차 통행하는 기존 교차로 공간의 문제점 지적
- 교차로의 신호등과 통행선을 철거하고 보행자, 자전거, 자동차가 서로 눈 맞춤(eye contact)을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통행속도를 조절하는 shared space
- 신호등·통행선 등 교차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망으로 인지되던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진입 차량, 자전거, 보행자가 스스로 조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 교차로 내 사고발생을 저감하는 요인으로 작동
- Net, Flow, Weaving, Criss-Cross, Clustering 등 shared space의 작동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 소개
- 보행자, 자전거, 오토바이 및 페리 이용객의 통행이 잦은 Amsterdam 중앙역 인근지역에 조성된 shared space 현장답사 및 평가 실습
- Shared space 작동요소 평가기법 적용 및 소그룹의 평가결과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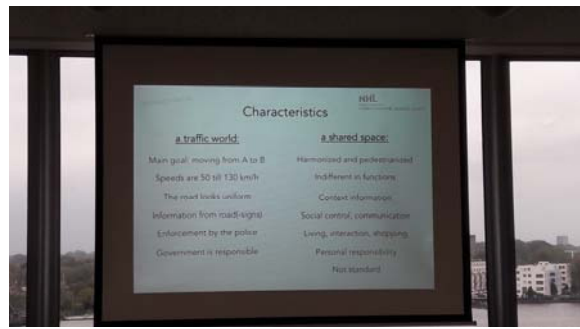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Evaluating Shared Spaces 워크숍 참여
(출처 : 2017.10.11. 직접촬영)

(3) 주제 발표 : Placemaking, Where Do We Stand? 등

- 일시 : 2017년 10월 12일(목)
- 장소 : Pakhuis de Zwijger
- 참석자 :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약 400명의 컨퍼런스 참가자
- 장소만들기에 관한 다수의 주제 발표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, 참석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참석함
 - Placemaking, Where Do We Stand? (Fred Kent, Founder & President, Project for Public Spaces 등 발제)
 - Tactical Urbanism to Strategic Change (Mike Lydon, Principal, The Street Plans Collaborative 등 발제)
 - Making Main Streets & High Streets (Rosa Daneberg, PhD Fellow, KTH The Centre for the Future of Places 등 발제)
 - Placemaking for Peacemaking (Vanessa Catalano, Architect 등 발제)

o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

- 21세기의 복잡다양함을 담아내는 도시 공간은 기존의 계획·설계체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극복방안으로서의 장소만들기 전략 활용이 필요함
- 장소만들기(placemaking)는 가로환경 및 이용자의 성격을 반영하여 장소만의 고유 특징을 부여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도시설계 방안으로, 지역 사회의 참여와 독립적 입장의 환경개선 및 지역 중심의 개발을 통해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음
- 장소만들기 전략은 보다 가볍고, 빠르며, 저렴하게(lighter, quicker, cheaper) 가로 공간환경 및 공공공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며, 한 차례의 개선조치로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각 개선조치의 모니터링을 통한 반복적 개선조치를 시행한다는 특징을 보임
- 장소만들기 전략은 미국 뉴욕, 샌프란시스코,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 개선사업, 유럽 발칸반도의 세르비아-알바니아 간의 코소보 사태로 파괴된 지역 커뮤니티의 재할 및 복구를 위한 전략으로 적용되는 등 다양한 지역과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
- 장소만들기 전략의 적용과 관련하여 암스테르담 외곽지역의 개발에 따른 암스테르담 중앙로의 공공공간 확대 방안, 로테르담 중앙로의 보행자 중심 개발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, 각 지역과 장소가 지닌 문제 해결 중심의 장소성 개발과 공간이용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



그림 3. 장소만들기 관련 각종 주제 발표 참석
(출처 : 2017.10.12. 직접촬영)

(4) 주제 발표 : Planning for Public Space in Amsterdam 등

- 일시 : 2017년 10월 13일(금)
- 장소 : Pakhuis de Zwijger
- 참석자 :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약 400명의 컨퍼런스 참가자
- 암스테르담 시의 장소만들기 적용 및 활용에 관한 다수의 주제 발표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, 참석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참석함
 - Amsterdam : Building a Citywide Placemaking Approach 2025 (Minouche Besters, Partner, STIPO 등 발제)
 - Planning for Public Space in Amsterdam (Ruwan Aluvihare, Head, Department of Spatial Planning, Gemeente Amsterdam 등 발제)
 - Public Sector, Public Space (Maxim Bragoli, Co-founder, La Pepiniere | Espaces collectifs 등 발제)

o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

- 암스테르담 시는 공공공간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경험과 장소만들기 전략을 바탕으로 최근 Public Space Vision 정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암스테르담 내 공공공간을 the city' s living room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 중
- 암스테르담 시의 Public Space Vision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님
 - 녹지대 지향 : 암스테르담 시 도시계획과는 시의 녹지대 확산을 위한 설계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성장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
 - 참여 지향 : 암스테르담 시 공공공간 설계안 수립 과정을 기존의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중심의 상향식 체계로 전환
 - 보행성 향상 지향 : 암스테르담 시의 mobility 전략 수립 시 최근까지도 자동차, 대중교통, 자전거 중심의 계획을 마련하고 잉여 부지를 보행자 공간으로 계획하는 상황이었음. 보행 중심 도시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행자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전략을 수립 중임
- 암스테르담 시는 현재 거주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과밀화를 경험 중이며 2025년까지 50,000호의 주거 추가 계획을 수립하였음
- 암스테르담 시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공공공간 보급과 개선에 관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장소만들기 전략을 활용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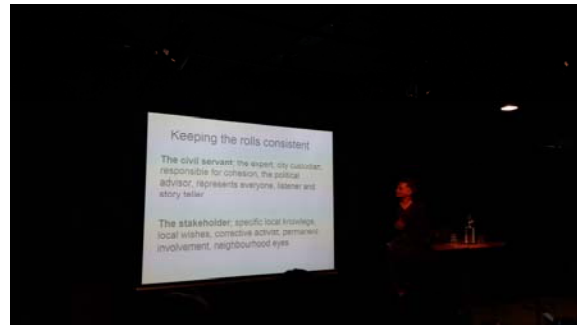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암스테르담 시의 장소만들기 전략 활용 관련 각종 주제 발표 참석
(출처 : 2017.10.13. 직접촬영)

(5) 현장 워크숍 : Nieuwezijds Voorburgwal : From a Space for Cars to a Place for People

- 일시 : 2017년 10월 14일(토)
- 장소 : Nieuwezijds Voorburgwal
- 참석자 : Guide Kuijvenhoven(Project Leader, Street-Oriented Approach, Gemeente Amsterdam), Danielle Meiboom(Area Manager, Nieuwe Zijde, Gemeente Amsterdam),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 등 38명의 컨퍼런스 참가자
- 본 프로그램은 Nieuwezijds Voorburgwal 이면도로의 공공공간 개선과 장소성 개발을 위한 주변 지역 답사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현장 워크숍

o 현장 워크숍의 주요 내용

- 암스테르담 시의 쇼핑 중심 가로 구역과 운하 벨트 사이에 위치한 이면도로이다 두 구역의 통행로 역할을 수행하는 Nieuwezijds Voorburgwal는 역사적으로 불법 거주자들에 의한 공공공간 침입과 침해의 문제를 경험함
- 암스테르담 시는 해당 가로환경과 공공공간을 기존의 자동차 통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나, 공간이 보유하던 기존의 지역성, 인종적 다양성 및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
- 본 현장 워크숍 참가자들은 Nieuwezijds Voorburgwal 지역 일대를 답사하고 한자리에 모여 해당 지역의 공공공간 개선과 장소성 유지·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



그림 5. Nieuwezijds Voorburgwal 현장 워크숍 참여
(출처 : 2017.10.14. 직접촬영)

(6) 암스테르담 Museumplein 및 Amsterdam Museum 답사

- 일시 : 2017년 10월 15일(일)
- 장소 : Museumplein, Amsterdam Museum
- 답사자 : 오성훈 선임연구위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(auri)

o 답사의 주요 내용

- 암스테르담 Museumplein(주: 박물관광장)은 반 고흐 박물관, Rijks 박물관, Stedelijk 박물관, 국립콘서트홀 등의 건축물로 둘러싸인 대규모의 공공공간 · 광장 공간으로 넓은 잔디밭과 중앙의 대형 인공연못, “I amsterdam” 조형물이 설치된 암스테르담의 대표적 장소성 개발 사례
- “I amsterdam” 조형물은 암스테르담 시의 브랜드로 서울시의 브랜드 “I.Seoul.U” 개발에 영향을 주었으며, 해당 문구를 대형 조형물로 설치하여 Museumplein 방문객의 포토존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자체 브랜드의 조형화를 통한 장소성 부여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
- Amsterdam Museum은 암스테르담의 역사를 설명하는 각종 자료와 대표적 역사유물과 전시물을 배치해 놓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중정 공간을 간단한 차와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
- Amsterdam Museum의 역사관에는 암스테르담의 인구증가와 도시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지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, 암스테르담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확산과 그로 인한 도시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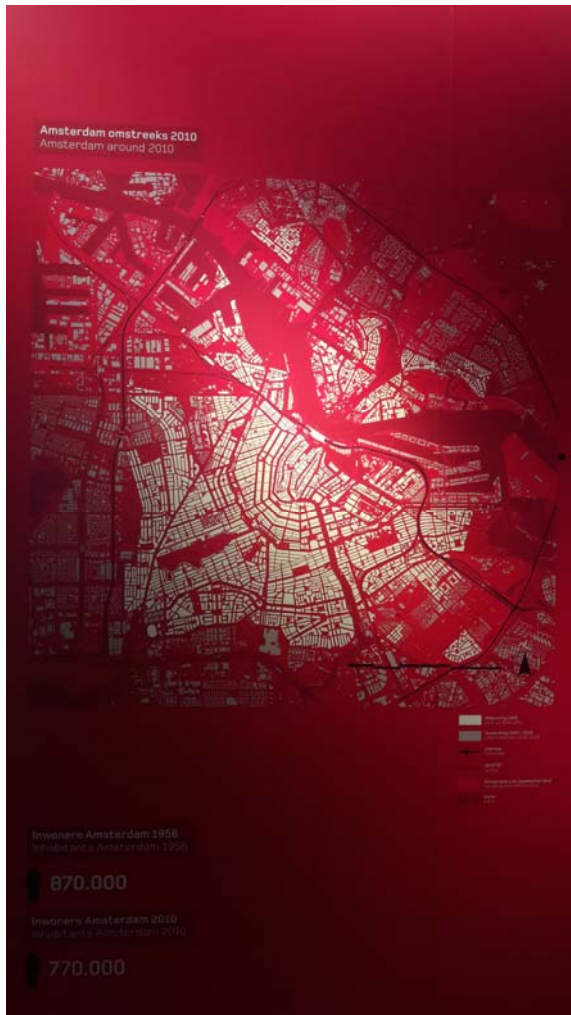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Museumplein 및 Amsterdam Museum 답사
(출처 : 2017.10.15. 직접촬영)

3. 출장성과 및 시사점 요약

- 장소성 기반의 전략계획은 현시대의 공간환경에 대한 복잡다양한 요구와 가로환경 이용자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 가능하며 기존 도시계획·개발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함
 - 기존 도시계획·개발은 비가역적이며 대규모의 계획과 설계 방식으로 가로 공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이는 21세기의 복잡다양한 가로환경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짐
 - 지역사회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를 갖는 장소만들기 전략계획은 보다 가볍고, 빠르며, 경제적(lighter, quicker, cheaper)으로 가로의 공간환경과 공공공간을 개선하며 반복적인 개선조치의 도입과 성과를 모니터링함
 - 뉴욕, 암스테르담, 코소보 등 미국과 유럽 지역 주요 지자체는 장소만들기 전략계획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보행 중심 가로활성화 계획·설계안을 수립함
 - 거주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밀화를 겪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Public Space Vision 정책을 통해 암스테르담 내 공공공간을 시민의 거실(the city's living room)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녹지대 지향, 참여 지향, 보행성 향상 지향을 목표로 주요 공공공간의 장소성 개발·부여를 위해 노력 중
- 암스테르담 시는 2017 Placemaking Week 컨퍼런스의 각종 현장 워크숍과 패널 토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암스테르담 시 주요 공공공간 장소성 개발정책의 시사점으로 활용함
 - 2017 Placemaking Week 암스테르담 컨퍼런스는 출장자가 참여한 3개 지역의 장소성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포함하여 약 50여 가지의 on·off-site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최함
 - 각 워크숍은 암스테르담 내 주요 공공공간을 하나씩 담당하며 워크숍의 결과는 현장에서 암스테르담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구체화되고 지자체 공공공간의 장소성 중심 전략계획으로 활용함
 - 컨퍼런스 참석자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암스테르담 시의 장소 중심 공공공간 전략계획 시행을 독려하고 행사를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계획의 수립과정을 피드백 받음

-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지자체 주요 가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장소성 중심의 전략계획 수립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집단이 지자체 가로환경 개선 전략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필요
 -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보행 중심 가로환경의 구축과 공공공간에 대한 요구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장소성 중심의 전략계획 적용은 미국 및 유럽 등 도시계획·개발 선진국의 주요 정책 동향임을 파악함
 - 지역사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장소성 중심 전략계획은 현재 국내 지자체가 경험하는 다양한 가로 및 보행 공간 개선의 요구에 대응하고 기존의 보행가로 개선 정책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설계적 이점을 지님
 - 암스테르담 시는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활용하여 시 공공공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장소만들기 관련 전문가 자문을 축적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암스테르담 시 정책사업의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
 - 우리나라의 구도심 재생계획 및 각종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외 선진사례와 이론을 국내 도시계획·설계체계의 특성과 각 지자체 사업추진 특징에 맞추어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
 - 암스테르담 워크숍 과정을 참고하여, 연구 성과의 실효성·파급력 증진을 위한 장소기반 전략계획 수립 사례 지역·대상 선정과 시행을 고려한 시나리오 수립 등의 실천적 연구가 필요함

4. 출장구득자료

- o PPS Placemaking 자료집 및 네덜란드 장소만들기 사례집 등 관련 발간물 4종

